

美國 중고교의 독서교육

‘독서력 배양’은 국가적인 요구

金炳元

포항공대 교수·심리언어학

미국의 중고등학교에서는 독서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미국이나 기타 영어를 사용하는 많은 나라에서 행하고 있는 독서교육은 우리의 경우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독서교육의 목표나 방법도 다르거니와, 일반 학생들과 뒤떨어진 학생들을 따로 지도하고 있다.

필자는 뉴욕주의 수도 올바니에서 5년간 거주한 일이 있다. 내 전공이 심리언어학, 즉 읽기와 쓰기와 언어교육인데다가 아이들이 그곳 각급 학교에 다니고 있었으므로, 아이들의 학교와 교실을 계획적으로 자주 방문했다. 그때의 전문과 경험을 배경삼아, 미국 독서교육의 세가지 측면을 소개하고자 한다.

독서교육의 목표 — 읽기와 쓰기

우선, 그네들의 독서지도 방법 자체에서 여러가지 우리와는 다른 면들을 볼 수 있다. 그런 구체적인 사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고교 교사들이 실시하고 있는 독서지도의 배경을 이루는 미국의 교육현실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지난 1976년 조지 켈럽 여론조사에서 한가지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즉, 미국 국민은 학교가 학생들의 기초실력을 개개인의 능력별로 발전시켜 주기를 요구하고 있었다. 여기서 기초실력이란 읽기·쓰기와 셈하기 능력을 말한다.

교육은 그런 기초실력만을 길러주는 것은 아니다. 사고력이며 윤리도덕관, 국가관 등을 길러주어야 할 뿐 아니라 분야별로 폭넓은 상식과 전문지식, 전문기술도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은 그 모든 것보다도 읽고, 쓰고, 셈하는 능력을 최우선으로 요구하고 있음이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것이다.

그때부터 미국의 독서교육은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스스로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는 데에 최고의 목적을 두게 되었다. 그후 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미국의 각 州議會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로 하여금 졸업자격 취득을 위해 ‘최소능력 평가’시험을 치르도록 했다.

그 시험과목이 곧 읽기·쓰기와 수학이다. 그중 읽기시험은 각 분야별 내용이 담긴 여러 종류의 글을 읽고, 그 내용에 대한 물음에 답

을 쓰되 그것이 고교졸업 수준에 이르러야만 한다. 이 시험에 합격해야만 각자의 취직이 보장되는 졸업증서를 주며, 불합격이면 교육 12년 과정을 이수한 사실만을 증명하는 수료증을 준다.

전문교사의 집중적인 특별지도

중고교에서 독서지도를 따로 받아야 할 학생들은 각자의 능력(독서력 수준)에 따라 몇 개의 작은 집단으로 나뉜다.

특별독서지도 교사는 대학원에서 독서지도를 공부하여 독서전문 지도교사의 자격증을 얻은 이들이 대부분이다. 그들은 집중적인 독서지도에 필요한 책들을 선정할 줄 안다. 선정된 각종 도서의 난이도에 따라 학생들과 함께 읽어 나갈 독서지도계획표를 작성할 줄도 안다. 학생들이 교사와 함께 읽을 때, 어떻게 지도하면 낮은 독서력이 기능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가도 안다. 독서에 취미를 붙이도록 학생들을 돕는 여러가지 방법도 알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독해력을 검사하는 문제들을 구성하는 출제기술이 있다.

이런 전문교사들이 있고 적정한 도서가 준비되어 있는 곳에 학생들의 소집단이 모이면, 그때 집중적인 특별지도가 가능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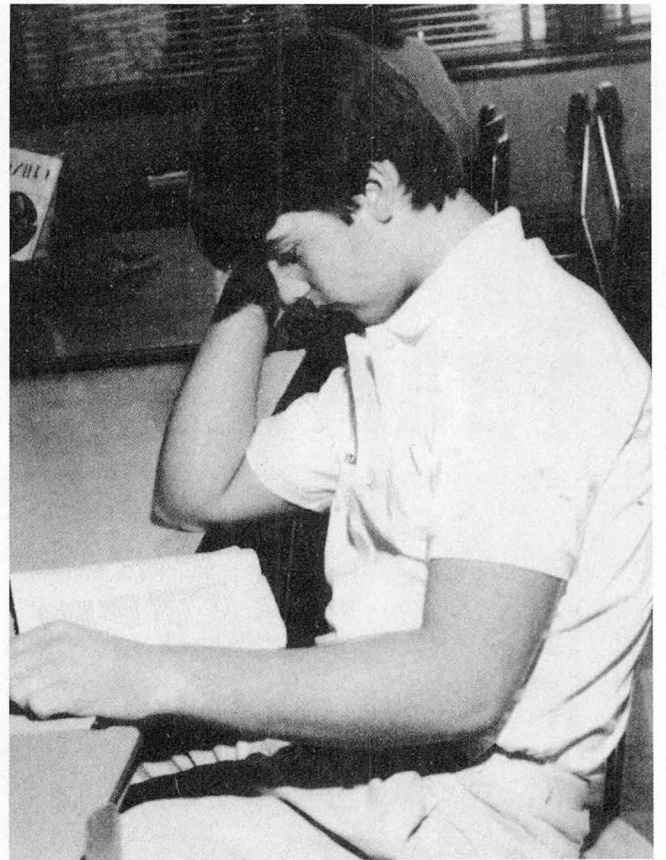
대개 큰 테이블에 학생들과 교사가 둘러앉아, 똑같은 책을 앞에 놓고 한 시간 또는 그 이상을 보낸다. 그런 지도시간을 일주일에 두번 또는 세번 갖는 것이 보통이다. 그 학생들 중에서도 더욱 문제가 있는 학생은 교사가 개별 지도를 하기도 하고, 가정과의 협력을 통해 생활지도도 겸하게 된다.

특별집단지도는 대개 정규 학과시간 외에 별도로 받는다. 그러나 때로는 정규 시간, 예컨대 사회시간에 학급에서 따로 떨어져 사회 과목과 관련있는 낮은 수준의 책을 가지고 별도 지도를 받는 예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지도내용의 밀도가 높고 진도도 빠르다. 그래야만 되도록 빨리 정규과목 시간에 들어가 합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서력 낮으면 졸업자격 불인정

대부분의 학생들은 평소 자신의 학년수준이

미국의 독서교육은 학생 개개인이 스스로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을 길러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전문지도교사와 갖가지 읽기자료들이 항상 마련되어 있다.



요구하는 정도의 글을 스스로 읽고 讀解할 수 있는 기초가 되어 있게 마련이지만, 다만 다양한 내용들을 여러가지 목적으로 많이 읽고 그 결과를 활용하는 독서경험의 축적이 요구된다. 그래야만 졸업자격시험에 출제되는 다양한 내용의 글들을 읽고 바른 답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학교는 각 과목별로 교과서 내용에 맞추어 학생들에게 읽힐 독서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고 있다. 동일한 종류의 책을 학생수만큼 구입해 두었다가, 학기가 시작되면 각 학년 학급의 학과시간별로 전체 학생들에게 나눠준다. 학생들은 이 책을 받아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스스로 읽는다. 다 읽으면 책은 학교에 반환한다. 그러면 교사는 각 개인의 독서결과를 시험으로 평가한다.

이런 목적으로 쓰이는 많은 종류의 분야별 책들은 글내용의 難易度가 미리 산출되어 있어서, 각 학년에 알맞는 수준의 독서과제가 각자에게 주어진다. 그러므로 책을 읽고 나서 확인시험에 실패하면, 그는 그 계통, 그 수준의 책을 스스로 읽어낼 수 없다는 판정을 받게 된다.

그런 학생들은 자신의 학년과는 관계없이, 더 낮은 수준의 책을 배정받아 특별독서지도를 받게 된다. 그리하여 독서력이 정상 수준으로 향상되어 자기 학년수준의 책들을 스스로 읽어낼 수 있을 때까지 이 특별독서지도는 계속되는 것이다.

국민학교와 대학에서도 실시

앞서 소개한 고교졸업 자격시험의 독서력 부분을 위한 교육은, 사실상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시작된다. 즉, 각 국민학교에서는 뒷날 학생들이 고교를 졸업할 때 치르게 될 ‘최

소능력 평가’시험의 예비시험을 보는데, 3학년에서 4학년으로 올라가는 학생 전원이 대상이 된다. 시험 결과, 독서력이 자신의 학년 수준에 못미치는 학생은 별도의 집중지도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고교졸업 자격에 필요한 기초실력의 기반 다지기를 국민학교 4학년에서부터 시작하는 셈이다.

대학에서는 독서력이 더욱 중요해진다. 그 독서력은 중고교과정에서 닦은 최소능력을 기능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강조된다. 대학의 독서교육에서는, 예컨대 전문서적을 스스로 읽고, 필요한 학습내용을 찾아내어 종합하고, 이를 다시 분류하고 정리하는 기술이 다루어진다. 또 내용이 낯설고 복잡한 글을 스스로 읽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를 정리·요약하거나 비판하는 능력 등을 익히게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즉, 미국의 중고교 독서교육 현상이 것처럼 짜임새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까닭은, 바로 그 나라 교육과 사회 전체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각자가 스스로 책을 읽고 활용할 수 있는 독서력을 갖춘 졸업생이 국가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므로, 중고교 교육현장에서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그러한 능력을 책임있게 배양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필요한 전문지도교사들이 있고, 학생들과 교사가 동시에 한자리에서 읽을 수 있는 책들이 준비되어 있으며, 일반지도나 특별지도에 소용되는 각종 자료들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 국가사회의 요구를 교육이 충족시켜나가는 현실에서 생기는 결과가 아닌가.

이 모든 것을 우리 현실과 비교해 보면 분명 한 시사점들이 발견될 것 같다.